

강원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지원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전공 석사)*

박우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배병윤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부 박사)***

국 문 요 약

청년취업은 매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청년취업을 제고방안으로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지역의 청년들의 경우 타 지역으로 진출하는 인구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에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기업의 특성인 정부지원 참여도, 교육이수 정도, 지식재산권 보유정도, 인증 보유정도인 4가지로 분류하고 창업성과(매출액, 존속기간, 존폐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 나이와 지리적 요인(영동·영서)으로 투입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나아가, 창업기업 특성과 창업성과 간의 후속지원이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교육이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은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부사업 참여도가 많을수록 기업 존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도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후속지원에 대한 분석결과는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후속지원 매개효과에서는 지리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 모두 창업성과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예비)청년창업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창업 지원기관에서는 원활한 기업 관리와 선정을 위하여 기업 특성들을 참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도출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의 시기별 유기적 연계지원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강원도, 청년창업, 창업, 후속지원, 창업성과

I. 서론

1.1 연구배경

국가경제위기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며 경기가 침체되며 기업에서는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ICT, 인공지능 등 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 구직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고용 파생효과를 위하여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해외의 많은 사례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살펴볼 수 있다. Wallsten(2001)은 기업 진입이 증가할수록 기업밀도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

면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39세 취업자수는 2014년 112,333명에서 2018년 111,377명으로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전국대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인 취업자와 실업자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통계자료에서는 2018년 실업률은 전국 3.8%, 강원도 2.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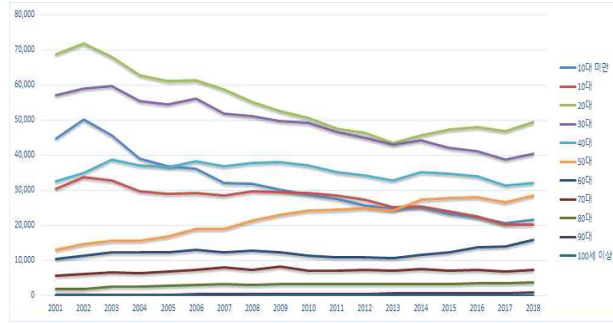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비율이 상승하였지만 강원도 나이대별 진출인구수를 살펴보면<그림 1> 2018년에는 220,252명으로 도내 취업으로 취업인구수 증가 보다는 20대 청년층의 지속적인 역외유출로 인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었다.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층 진출률은 43.7%로 특히, 20대의 진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주저자,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전공 석사, yunnjw@naver.com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hawkmaint@yonsei.ac.kr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부 박사, yonseibby@gmail.com

· 투고일: 2020-03-10 · 1차 수정일: 2020-05-14 · 2차 수정일: 2020-06-09 · 게재확정일: 2020-06-23



출처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2018)
 <그림 1> 강원도 나이대별 전출 인구수

전출인구의 20.1%인 대부분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강원도 내 고학력 구직자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층의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접할 수 있는 지리적 요인을 주로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지역별 임금조사 결과에서는 2017년도 강원도의 평균 임금은 서울지역 대비 84만원이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평균 임금과 비교해 보면 41만원 정도 낮았다. 상대적으로 편의 및 문화시설의 편익이 높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성향 때문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에서의 강원도 사업체 업종 비율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이 89%이상을 차지했으며,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경우 5.6%였고,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는 93.1%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강원도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있어 불안이 내재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적어 고학력 수준의 일자리 부족에 따라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기업 발굴·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창업성과를 분석해보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미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이 사업성과에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이런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강원도의 정부 지원사업의 성과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창업기업의 어떤 특성이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미비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면서 강원도 창업지원이 효과적으로 청년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강원도 창업창업 프로젝트

강원도에서는 도내 경제 활력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으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창업 지원사업으로 크게 사업화, 교육·컨설팅, 자금·시설, 재도약 등 단계별 분야별로 나뉜다.

강원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청년창업 프로젝트’가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18세에서 만39세 사이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또는 1년 미만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은 기술력 있는 (예비)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을 통하여 강원도내 자발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사업에 선정된 청년창업기업을 후속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있다. 본 사업은 폐업이나 휴업이 아닌 창업기업을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이후 다음단계의 시장 판로개척이나 마케팅 등 창업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2.2 정부 창업지원사업

기존의 정부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정부 창업지원정책 통한 창업성과로 만족도, 자아 실현, 매출액, 고용성과, 창업의지 등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이창구·서영옥(2018)은 청년 창업가의 정부의 자금지원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정부의 멘토링 지원은 고용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정부의 창업 지원서비스의 필요성과 성과를 입증하였다. 특히, 전인오(2012)는 정부 정책지원(자금·인력·마케팅 지원)이 청년창업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자금지원의 영향이 가장 높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의 경우 시제품 제작, 설비구축 등 초기자금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 초기자금은 창업을 하려는 청년에게 있어서 부담되고 비중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지원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통한 창업성과와 관련 선행연구에 따라 강원도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본 연구를 위하여 강원도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2.1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은 기술력 있는(예비) 청년창업자를 발굴을 통하여 도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으로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또는 기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 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다. 본 사업에 선정된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과 창업자의 별도 자부담금으로 1년 동안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집행한다. 이외에도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부가적으로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2.2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지원사업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이후 3년까지 폐업하지 않은 생존한 기업에 한하여 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에 선정되고 협약 이후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포기, 폐업, 이진, 휴업(중단)한 상태가 아닌 창업기업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충족하고, 창업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창업기업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다.

2.3 창업교육 관련 선행연구

Kierulff(2005)는 창업교육의 효과로 인식 개선과 확실성 등 나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자의 역량은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강화 될 수 있고,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Timmons, 1994). Kirzner(1997)는 창업교육은 기회 창출과 정보·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성공한 창업가를 통해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용희 외(2016)는 창업교육의 효과로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움으로 창업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여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상균(2016)은 (예비)창업자는 창업 교육을 통하여 창업의 전 과정 배움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홍효식·설병문(2013)은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에게서 창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학습지향성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며, 지식 및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잠식 가능성을 낮추고 경쟁에서 우위에 있도록 해준다(Dickson, 1996).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학습하는 조직문화는 기업에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단순히 시장지향성만으로는 기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업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습지향성은 기업성과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Slater & Narver, 1995). 창업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유연한 조직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조직전략은 신속한 외부환경 대

응에도 유리할 것이다(Carland et al., 1984).

2.4 지식재산권 관련 선행연구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업은 일반창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조달, 투자회수에 있어서 창업성과가 높게 나타났다(Mann & Sager, 2007). 또한, 특허를 기반한 창업기업은 독창성과 발전가능성에 검증되어있기 때문에 상업성 확보와 차별화가 되어있어 유리하다(Mann & Sager, 2007).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을 기반한 창업기업은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 더 나은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이윤 창출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Aghion & Howitt, 1990).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독보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공개하여 확산 시켜 수익창출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Acs & Plummer, 2005). 결국, 경쟁력 있는 특허를 보유하는 것은 재무적 실적을 상승시킬 것이다(DeCarolis et al., 1999).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조건은 핵심자원을 확보하는 것(Barney, 1991)이므로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특허를 보유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2.5 인증 관련 선행연구

중소기업은 특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증 제도를 통하여 기업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인증제도에에는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있는데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및 예비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요건에 충족되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은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등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연구개발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소나 부서에게 요건에 충족되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으면 연구개발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 외에 여성대표자로 이루어진 기업의 경우 여성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유연우·노재학(2011)의 연구에서는 제조 벤처 인증 및 이노비즈 인증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에는 평균적으로 재무효과, 마케팅효과, 이미지효과, 창업효과, 세제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화득(2009)은 이노비즈 인증과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감축시켜 미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신상혁·김문겸(2013), 김인성 외(2011) 등의 연구에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제도가 재무적 성과 등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6 후속지원 관련 선행연구

후속지원은 기존에 창업기업이 1차적으로 지원 받은 이후, 후속적인 관리차원으로 연속하여 추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업의 시장에서 초기에서 성장단계에 진입할 때 창업 단계별 성공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Timmons et al., 1987). 창업 초기 이후 시장 경쟁력에서 도태될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수반될지라도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에 넘지 못할 수 있다(Barr et al., 2009; Murphy & Edwards, 2003). 최근 창업 단계별 성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으며, 창업기업의 내·외부환경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창업 단계별 극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창업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은 중요하며 단계별로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승창(2014)은 연계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연계지원을 통하여 현금흐름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정부지원 시스템 활성화로 창업기업이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제도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후속관리가 중요하다.

2.7 창업성과 관련 선행연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무적성과, 비재무적 성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ovin & Slevin(1990)은 성과분석으로 매출액, 매출성장율, 매출이익, 투자수익률에 대한 중요도와 창업자 만족도를 통해 주관적인 성과자료를 사용하였다. Venkatraman & Ramanujam(1986)은 성과측정을 위하여 크게 3가지를 사용하였다. 재무적 지표로 투자자본 수익률,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등을 사용하였고 비재무적 지표로서 시장점유율, 성장률 등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지표로 만족도, 근로생활의질, 사회적 책임 등을 사용하여 성과를 측정하였다.

고봉상 외(2003)은 벤처기업의 성공을 계량적 성공과 주관적 성공으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계량적 성공은 매출액, 자산대비매출액, 고용성장률, 수익성 등이 있고, 주관적 성공은 목표 달성정도, 생존확률, 종업원 만족도로 두었다.

김영산 외(2003)의 한국기업의 폐업 및 합병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합병 혹은 폐업이라고 하였다. 특히, 존속기간이 5년 이하, 6~10년 사이의 기업들은 폐업이나 합병이 낮았고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같이 금융에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존폐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6가지 특성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한 '강원도 청년창업 프로젝트'의 청년 창업기업의 특성들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유추해볼 수 있었던 창업기업의 특성을 보유한 상태로 시작한 창업의 경우 어떤 특성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정부 창업지원사업, 교육, 지식재산권, 인증 등에 대한 관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강원도 창업지원사업의 연구와 청년층 나이에 대한 분류, 강원지역에 대한 지리적요인(영동·영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후속지원에 대한 연계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 청년 창업 프로젝트 수혜 창업기업 중 창업성과(매출액, 기업 존속기간, 존폐여부)를 분석하여 정부정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8 사회경험과 연령 관련 선행연구

박한림·오현석(2016)은 창업가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가는 경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체화시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일상의 경험과 비일상 경험을 통하여 성장한다. 따라서, 창업자에게 경험은 사업을 시작하여 성과에 유용할 것이다. 창업하는 과정에서 경험은 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창업자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Shane et al., 2000). 황인규 외(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근무경험, 관리경험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창업자가 높은 창업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Weick, 1996). Becker(1975)는 경험과 선행지식이 많을수록 상황적응 능력과 지식형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 Roure & Maidique(1986)는 벤처기업 경영자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와 유관한 경험이 있을 경우 성과가 높았다. 김민수 외(2010)는 창업자의 학력과 경력은 기술 창업기업에서 중요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상대적으로 고학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창업자의 경력 특성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김민수 외, 2010).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사회경험이 대체적으로 짧아 학습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경험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사회경험을 직접측정하지 않고 연령을 대응치로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Bhuiyan & Ivlevs, 2019; Patel et al., 2019).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통제변수 설정하여 분석한다.

2.9 지리적 요인 관련 선행연구

창업기업의 위치한 지리적요인은 창업기업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Marshall(1890)은 유사한 기업들이 집적함에 따라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에서 기업간의 네트워크 조성은 기업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성장하는 것이다(이진형, 2006). 이금숙박소현(2019)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주간인구가 많은 지역이 창업에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입이 많은 지역이 창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재훈(2014)의 지역성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성장경로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원주와 춘천지역은 성장하는 지역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강릉지역은 저성장 지역에 속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태백삼척·영월의 폐광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저성장 경로를 보여주었다(김재훈, 2014).

강원도 기본통계 자료의 영동·영서지역을 인구, 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표 1>에서 2017년도 주요 시별 인구밀도(인구수/면적km)는 대체적으로 영동지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구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표 2>와 같이 영서지역이 영동지역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수는 인구수와 유사한 양상으로 영서지역이 기업체수는 상대적으로 약 1.7배 가량 많다<표 3>.

선행연구에서 지리적 요인은 지역별 성장률, 특성 등에 따라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영동·영서지역을 통제변수로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 2017년도 주요 시별 인구밀도

(단위 : 명/km)

지역	영서		영동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인구밀도 (인구수/km)	254.6	396.9	207.4	519.7	152.0	787.0	58.4

* 강원도, 강원도 기본통계(2017)

<표 2> 영동·영서지역 연도별 인구수

(단위 : 백명)

연도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서	2,444	2,459	2,469	2,504	2,518	2,524	2,532	2,542	2,558	2,565	2,568
영동	588	583	582	584	582	580	579	576	571	568	567

* 강원도, 강원도 기본통계(2017)

<표 3> 영동·영서지역 연도별 제조업체수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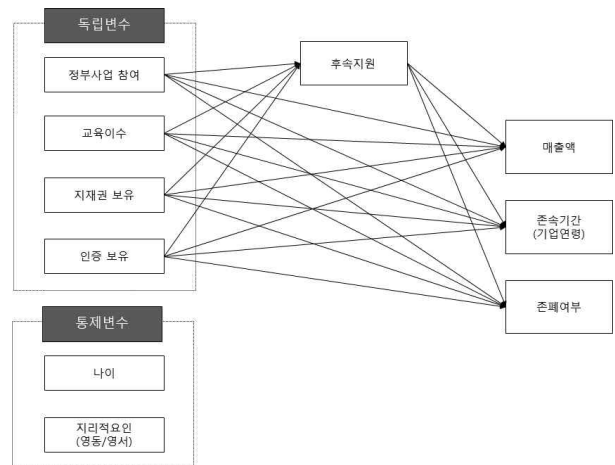
연도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서	3,775	3,675	3,665	3,616	3,740	3,845	4,105	4,558	4,721	4,770	5,207
영동	2,587	2,500	2,516	2,481	2,496	2,589	2,699	2,905	2,808	2,862	3,139

* 강원도, 강원도 기본통계(2017)

III. 연구의 분석틀 및 조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분석해보고자 하는 강원도 청년창업 프로젝트 지원대상 창업기업 특성들이 창업성과(매출액, 존속기간, 존폐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기업 특성과 창업성과 간의 후속지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강원도의 청년 창업기업이 정부 지원사업, 교육, 지식재산권, 인증에 대해서 지원받거나 보유정도에서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아가, 창업기업의 4가지의 특성들이 창업성과인 매출액, 존속기간, 존폐여부에 있어서 후속지원이 긍정적인 매개효과에 나타내는데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 나이와 지리적 요인(영동·영서)으로 투입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3.2 가설설정

3.2.1 정부지원사업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영향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창업기업의 서로 다른 크기, 상태, 특성 등 때문에 정부 지원정책이 창업기업의 니즈를 적체적소에 모두 맞출 수 없어 동일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Kuratko, 2016). 송치승박재필(2013)의 연구에서는 기술수준이나 대표자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재무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전인오(2012)는 창업자금 지원 정책은 청년창업에게 창업성과를 정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규태 외(2018)의 연구에서는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매출, 고용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선행

연구가 있었던 반면 정부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창업기업 자체 노력을 저해시켜 자생력을 잃어 성과를 낮출 수 있다(송치승·박재필, 2013).

정부지원 방식에 대한 연구로는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것은 성공확률을 높이고 클러스터형식의 지원은 입주한 창업기업에게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Siqueira et al., 2016). 선행논문을 통해 정부지원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예비·초기 창업기업에게 취약점을 해소시켜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 I: 창업기업 특성은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1: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는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1-1: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는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1-2: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는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1-3: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기업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교육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선행연구에서 체계화된 장기 창업교육은 긍정적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전인오, 2012). 홍효석·설병문(2013)의 연구에서는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은 청년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은 창업계획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며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승재·황보윤(2010)은 창업교육 전과 후를 비교한 연구에서 창업교육 이후 성과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역량은 후천적으로 교육, 학습을 통하여 주로 습득되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창업 교육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혜선·박배진, 2009). 박재환 외(2010)의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은 자기 유능감과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결국 교육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는 창업기업의 성과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지원에서의 창업교육 기업의 우수한 성과도출에 기여할 것이다(천동필, 2018). 이를 통해 창업교육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구성할 수 있다.

가설 I-2: 창업기업의 교육이수 정도는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2-1: 창업기업의 교육이수 정도는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2-2: 창업기업의 교육이수 정도는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2-3: 창업기업의 교육이수 정도는 기업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지식재산권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시장에 확산시키고 수익창출로 이어질 것이다(Acs & Plummer, 2005). DeCarolis et al.(1999)는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기술적으로 경쟁우위에 있어 재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정두희 외(2019)의 연구에서는 특허를 기반 창업기업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혁신성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고용규모가 상승함에 따라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났고 제품판매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규모도 확대되었다(정두희 외, 2019).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한 제품은 독창적이고 시장에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Chen, 2007). 이외의 선행연구에서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긍정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기술보증지급 연구자료(2014)에 따르면 기술창업기업의 생존율은 82.5%이고 일반창업기업의 생존율은 29.6%로 지식재산권,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경우 생존율이 약 53% 정도 높에 나타났다.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생존율과 매출 등 전반적인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

가설 I-3: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는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3-1: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는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3-2: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는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3-3: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는 기업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인증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인증제도는 기업 운영에 있어 세제혜택, 이미지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정부지원 또는 세제혜택이라는 이점이 있어 기업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민성 외(2011)의 연구에서는 이노비즈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가정하여 이노비즈 인증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부채비율이

낮아져 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이노비즈 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경영성과인 수익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신상혁·김문겸(2013)의 이노비즈와 메인지브 인증제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인증을 받은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기업성과는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성·김원배(2013)의 이노비즈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와 연구개발투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고 재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창업성파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

가설 I-4: 창업기업의 인증 보유정도는 창업성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4-1: 창업기업의 인증 보유정도는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4-2: 창업기업의 인증 보유정도는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4-3: 창업기업의 인증 보유정도는 기업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후속지원과 창업성파와의 관계

정부지원사업이 창업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이 지원받은 이후 그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서 정부지원사업의 영향에 대하여 창업성파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다. Pontikes & Hannan(2014)은 창업기업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방식에 따른 맞춤형은 매우 중요하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단계에 맞는 사후관리 차원의 후속지원에 대한 창업성파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의 특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정도, 교육이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 인증 보유정도, 대표자의 사회경험도, 창업기업 소재지의 지리적요인이 후속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나아가, 창업기업의 특성과 창업성파 간의 후속지원이 간접 매개효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후속지원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었다.

가설 II: 창업기업 특성은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1: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는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2: 창업기업의 교육이수 정도는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3: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는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4: 창업기업의 인증 보유정도는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 창업기업에게 후속지원은 창업성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1: 창업기업에게 후속지원은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2: 창업기업에게 후속지원은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3: 창업기업에게 후속지원을 받은 기업일수록 생존할 것이다.

가설 IV: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창업기업의 특성과 매출액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IV-1: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와 매출액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IV-2: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교육이수 정도와 매출액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IV-3: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와 매출액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IV-4: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인증 보유정도와 매출액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V: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창업기업의 특성과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V-1: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와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V-2: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교육이수 정도와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V-3: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와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V-4: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인증 보유정도와 기업 존속기간(기업연령)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VI: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창업기업의 특성과 존폐여부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VI-1: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와 존폐여부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VI-2: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교육이수 정도와 존폐여부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VI-3: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와 존폐여부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VI-4: 창업기업의 후속지원은 인증 보유정도와 존폐여부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3.3 통제변수

3.3.1 사회경험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Roure & Maidique(1986)의 연구에서는 현 직무와 성격과 동일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창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수 외(2010)의 창업자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경력특성과 창업교육 경험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실무 및 창업경험, 직장생활 등 사전경험은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황인규 외(2017)는 마케팅 혁신에 있어서 창업자의 근무 및 관리경험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지식이나 경험이 많을수록 처음 접하게되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결국 창업에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황인규 외, 2017). 박원미·최수영(2014)의 연구에서는 탐색적 사례연구에서는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창업활동으로 이어지고, 이로인해 나타난 인적자본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정도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창업자의 나이는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3.3.2 지리적요인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창업기업의 소재한 지리적 요인에 관련된 선행논문으로 류준영 외(2014)의 서울지역 기업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다양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기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단일의 유사업종 밀집이 높은 지역일수록 위험률이 낮게 나타났고 생존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이 기업 생존기간이 길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김현철(2019)의 골목상권 매출액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업종 수가 많고 상권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을 연구하거나 골목상권으로 지역과 산업특성이 본 연구와는 연구대상이 다른 연구지만,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를 통해 강원도를 크게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으로 나누어 두 지역간의 특화된 산업에 따라 창업성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리적 요인으로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수의 유형과 조작적 정의 및 출처는 다음과 같다.

<표 4>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변수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참고출처
독립 변수	정부사업 참여	창업과정 자금, 정보 등 지원	정부지원사업 수혜 건수 (비율척도)	곽규태 외(2018), 전인오(2012)
	교육이수	창업관련 기술, 지식, 자문 제공	교육이수 건수 (비율척도)	이승재·황보운 (2010), 전인오(2012)
	지식재산권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보유건수 (비율척도)	정두희 외(2019), Chen(2007)
	인증 보유	벤처기업, 여성기업 등 인증 획득	인증보유 건수 (비율척도)	김인성 외(2011), 김인성·김원배 (2013), 신상혁·김문겸 (2013)
매개 변수	후속지원	후속지원	지원여부(명목척도)	-
종속 변수	창업성과	창업 후, 발생 매출액	로그매출액 (비율척도)	고봉상 외(2003), 김영산 외(2003)
		존속기간 (기업연령)	창업 후 존속기간 (비율척도)	
		존폐여부	기업유지, 폐업 유무 폐업 : 0, 생존 : 1 (명목척도)	
통제 변수	사회 경험	창업자의 나이	창업 당시 나이 (비율척도)	황인규 외(2017), Roure & Maidique(1986), 김민수 외(2010)
	지리적 요인	창업기업 소재지	영동 : 0, 영서 : 1 (명목척도)	김현철(2019), 류준영 외(2014)

3.5 연구데이터 및 통계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8년 9년 동안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총 236개 기업 중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3개 기업을 제외한 233개 기업의 자료를 연구 데이터로 하였다. 매개변수인 후속지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이후 그 다음해인 1년차부터 최대 6년차 사이에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후속지원을 받은 여부로 하여 분석하였다.

지원대상 <표 5>와 같다. 총 수집된 데이터는 AMOS 18.0의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5> 강원도 청년창업 프로젝트 선정현황(2010년~2018년)
(단위 : 명)

구분	생존	폐업	포기	중단	합계
2010년	10	36	1	2	49
2011년	9	18	2	1	30
2012년	9	13	1		23
2013년	6	15			21
2014년	8	8	1		17
2015년	9	5	1		15
2016년	14				14
2017년	29	4	1		34
2018년	26	4			30
합계	120	103	7	3	233

IV. 실증분석 결과

4.1 가설검정 결과

후속지원을 매개변수로 하였을 때 창업기업 특성과 창업성과를 종합한 결과 대체적으로 설정한 가설들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특성이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한 가설 I에서 첫 번째 특성인 정부지원사업 참여도의 경우 창업성과인 매출액의 검증결과는 $\beta=.075$, $t=4.069$, $p<0.01$, 기업의 존속기간의 검증결과는 $\beta=.266$, $t=5.831$, $p<0.01$, 존폐여부의 검증결과는 $\beta=.061$, $t=6.327$, $p<0.01$ 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특성인 교육이수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매출액은 $\beta=.001$, $t=.306$, $p>0.1$ 과 존폐여부는 $\beta=-.001$, $t=-.364$, $p>0.1$ 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존속기간에 대한 결과는 $\beta=-.019$, $t=-2.075$, $p<0.05$ 채택되었으나 부(-)의 방향으로 나타나 오히려 교육이수 정도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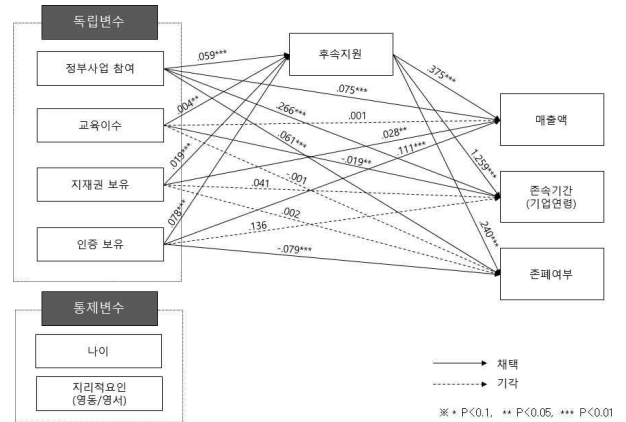
세 번째 특성인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에 대해 검증한 결과 매출액은 $\beta=.028$, $t=2.481$, $p<0.05$ 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 존속기간의 검증결과 $\beta=.041$, $t=1.456$, $p>0.1$ 과 존폐여부의 검증결과는 $\beta=.002$, $t=.309$, $p>0.1$ 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네 번째 특성인 인증 보유정도는 존속기간에 대한 검증결과 $\beta=.136$, $t=1.438$, $p>0.1$ 로 가설은 기각되었고, 매출액의 검증결과는 $\beta=.111$, $t=2.914$, $p<0.01$ 로 가설은 채택되어 인증 보유 정도는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폐여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beta=-.079$, $t=-3.964$, $p<0.01$ 로 채택되었으나 존폐여부에 대한 영향은 부(-)의 방향으로 나타나 기업의 존폐여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특성과 후속지원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II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로 정부지원사업 참여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후속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beta=.059$, $t=6.475$, $p<0.01$ 나타났다. 교육이수를 많이 받은 창업기업이 후속지원을 많이 받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한 결과 $\beta=.004$, $t=2.320$, $p<0.05$ 으로 채택되었다.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에 대한 가설 검증결과 $\beta=.019$, $t=3.226$, $p<0.01$ 으로 채택되었다. 인증 보유정도가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beta=.078$, $t=4.058$, $p<0.01$ 으로 채택되었다.

후속지원을 많이 받은 창업기업이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 III을 검증한 결과 종속변수인 매출액의 경우 $\beta=.375$, $t=5.293$, $p<0.01$, 존속기간의 경우 $\beta=1.259$, $t=7.141$, $p<0.01$, 존폐여부의 경우 $\beta=.240$, $t=6.446$, $p<0.01$ 으로 세 가지 종속변수 모두 채택되었다.

<표 6>은 연구모형을 분석한 가설검증 결과이며, <그림 3>은 검증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3> 가설 검증결과

<표 6> 연구모형 분석결과

가설	변수	경로	변수	β	t	P
H I -1-1	정부사업	→	매출액	.075	4.069	***
H I -2-1	교육		매출액	.001	.306	.760
H I -3-1	지식재산권		매출액	.028	2.481	**
H I -4-1	인증		매출액	.111	2.914	***
H I -1-2	정부사업		존속기간	.266	5.831	***
H I -2-2	교육		존속기간	-.019	-2.075	**
H I -3-2	지식재산권		존속기간	.041	1.456	.145
H I -4-2	인증		존속기간	.136	1.438	.150
H I -1-3	정부사업		존폐여부	.061	6.327	***
H I -2-3	교육		존폐여부	-.001	-.364	.716
H I -3-3	지식재산권		존폐여부	.002	.309	.757
H I -4-3	인증		존폐여부	-.079	-3.964	***
H II-1	정부사업		후속지원	.059	6.475	***
H II-2	교육	후속지원	.004	2.320	**	
H II-3	지식재산권	후속지원	.019	3.226	***	
H II-4	인증	후속지원	.078	4.058	***	
H III-1	후속지원	매출액	.375	5.293	***	
H III-2	후속지원	존속기간	1.259	7.141	***	
H III-3	후속지원	존폐여부	.240	6.446	***	

* P<0.1, ** P<0.05, *** P<0.01

4.2 매개효과 분석결과

창업기업의 4가지 특성과 창업성과(매출액, 존속기간, 존폐여부)간의 매개효과에 관하여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직·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3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효과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창업기업 특성 4가지 모두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로 간접 매개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는 부트스트랩 방식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7>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부사업 → 매출액	.214***	.165***	
교육 → 매출액	.025	.010	
지재권 → 매출액	.110**	.088**	
인증 → 매출액	.142***	.113***	
정부사업 → 존속기간	.299***	.233***	
교육 → 존속기간	-.049**	-.068**	
지재권 → 존속기간	.080	.051	
인증 → 존속기간	.095	.055	
정부사업 → 존폐여부	.319***	.259***	
교육 → 존폐여부	.006	-.012	
지재권 → 존폐여부	.038	.011	
인증 → 존폐여부	-.118***	-.154***	
정부사업 → 후속지원	.254***	.254***	
교육 → 후속지원	.077**	.077**	
지재권 → 후속지원	.114***	.114***	
인증 → 후속지원	.154***	.154***	
후속지원 → 매출액	.193***	.193***	
후속지원 → 존속기간	.257***	.257***	
후속지원 → 존폐여부	.237***	.237***	
정부사업 → 후속지원 → 매출액			.049***
교육 → 후속지원 → 매출액			.015***
지재권 → 후속지원 → 매출액			.022***
인증 → 후속지원 → 매출액			.030***
정부사업 → 후속지원 → 존속기간			.065***
교육 → 후속지원 → 존속기간			.020***
지재권 → 후속지원 → 존속기간			.029***
인증 → 후속지원 → 존속기간			.040***
정부사업 → 후속지원 → 존폐여부			.060***
교육 → 후속지원 → 존폐여부			.018***
지재권 → 후속지원 → 존폐여부			.027***
인증 → 후속지원 → 존폐여부			.037***

* $P < 0.1$, ** $P < 0.05$, *** $P < 0.01$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 창업기업의 특성과 창업성과인 매출액, 기업 존속기간, 존폐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후속지원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 특성인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창업성과인 매출액, 존속기간, 존폐여부, 후속지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후속지원의 간접 매개효과를 보였다. 정부지원사업 참여도가 활발한 창업기업은 전반적으로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특성인 교육이수 정도는 기업 존속기간으로 가는 경로에서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이나 존폐여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데이터의 지원사업 신청요건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이수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수에 관한 정도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후속지원에 대한 매개효과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창업성과 중 매출액에서는 수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연계지원을 통한다면 존속기간을 늘려 폐업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특성인 지식재산권의 보유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매출액과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존속기간이나 존폐여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와 창업성과 간에 후속지원에 대한 간접 매개효과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기업이 존속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존속기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금액지원을 통하여 기업운영에 있어 필요한 비용들을 해소시켜 준다면 기업의 매출액이나 기업 존속에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특성인 인증 보유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후속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존속기간과 존폐여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인증과 창업성과간의 관계에서는 간접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권 보유정도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게 후속적인 지원은 기업의 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통제변수인 사회경험도(나이)의 경우, 나이가 많은 창업기업은 수치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기업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편이고, 젊은 대표자일수록 수치적인 성과와 무관하게 성과가 부진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려는 도전정신과 끈기있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통제변수인 지리적 요인의 경우 지리적 요인은 창업기업이 후속지원을 받아 생존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시사하는 바는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 시, 성과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기업이나 존속기간이 짧은 창업기업의 경우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간접 매개효과가 나타났던 정부지원사업 참여정도, 교육이수정도, 인증보유 정도가 있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 후속지원도 여러차례 받았고 결국 긍정적인 창업성과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성과관리 측면에서 기업 선정기준이나 기업 지원기준에 대하여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도내 창업 활성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의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에서도 강원지역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시기마다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

5.2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수치적인 성과로 매출액, 기업의 존속기간이나 여부에 대한 성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지만 청년창업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해보지 못하였고 강원도 내의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분석에서 지리적인 분석의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변수 외의 변수들을 포함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매출액이나 기업 존속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하였지만 창업성과를 다각화한 성과를 분석하여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강원도 내에서 추진 중인 특장사업에 대한 데이터 샘플로 분석하여 자료수집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다. 다양한 표본자료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활용한 연구 데이터의 경우 후속지원 3년 정도로 단기적인 후속지원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단기적·장기적 지원으로 분류하여 후속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향후 연구를 통하여 청년창업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창업활동을 위한 방안과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장기화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

- 강원도(2017). *강원도기본통계*. Retrieved (2020.4.26.) from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211&blId=DT_A21&conn_path=I3.
- 곽규태·천영준·최세경(2018). 정부 정책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혁신학회지*, 13(2), 83-103.
- 고봉상·용세중·이상진(2003). 학술연구: 벤처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JSBI)(구 벤처경영연구)*, 6(2), 3-33.
- 기술보증기금(2014). *기술금융연구 기보 지원기업의 생존율 및 영향요인 분석* 4(2), 152-179
- 김민수·황보윤·김홍(2010). 창업보육기업의 창업자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5(2), 33-57.
- 김영산·왕규호·정수연(2003). 한국 기업들의 합병과 폐업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계량경제학보*, 14(4), 1-24.
- 김인성·김소형·조용미(2011). 이노비즈(INNOBIZ) 기업 인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코스닥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29(1), 183-210
- 김인성·김원배(2013). 이노비즈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술혁신능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7(2), 137-160.
- 김재훈(2014). 외환위기 이후 강원도의 지역 격차. *사회과학연구*, 53(1), 3-36.
- 김현철(2019). 서울시 골목상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20(1), 117-134.
- 김혜선·박재진(2009). 창업교육 요구도와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4(4), 139-165.
- 나상균(2016).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 창업성공요인 및 창업성과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5(4), 251-268.
- 류준영·남진이·창효(2014). 서울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도시행정학보*, 27(4), 247-271.
- 박원마·최수영(2014). 관련 기업 근무경험이 '질 좋은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5), 141-155.
- 박재환·최명길·김용태(2010).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교육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1(3), 1085-1094.
- 박한림·오현석(2016). 경험을 통한 창업가의 학습 연구.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8(1), 85-112.
- 송치승·박재필(2013). 우리나라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 *기업경영연구(구 동림경영연구)*, 51, 215-240.
- 신상혁·김문겸(2013). 혁신형중소기업인증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노비즈와 메인비즈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13(3), 193-217.
- 유연우·노재환(2011). 제조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의 효과 차이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4(1), 1000-1023.
- 이금숙·박소현(2019). 업종별 창업 및 폐업의 지리적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 학회지*, 22(2), 178-195.
- 이승재·황보윤(2010). 단기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5(1), 19-44.
- 이승창(2014). 청년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생존전략. *유통과학연구*, 12(6), 81-88.
- 이용희·홍광표·정유섭·박수홍(2016). 벤처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전략 개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8(1), 133-157.
- 이진형(2006). *대전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입지 요인과 공간적 연계*.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 이창구·서영욱(2018). 지역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6), 182-207.
- 이화득(2009).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감축과 미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27(4), 275-298.
- 전인오(2012). 창업지원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103-114.
- 정두희·이경표·신재호(2019). 지식재산기반 창업의 효과 및 시사점: 주요 창업성과에 대한 특허기반 창업의 영향. *벤처창업연구*, 14(3), 1-11.
- 천동필(2018). 창업자 특성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4), 1-12.
-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Retrieved (2019.4.6.)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
- 통계청(2018). *국내인구이동통계*. Retrieved (2019.4.7.)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B10&conn_path=I3.
- 황인규·이우진·김도현(2017). 제조업 분야 창업가의 기업가정신과 경험특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2(4), 189-214.
- 홍효석·설병문(2013).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8(2), 141-151.
- Acs, Z. J., & Plummer, L. A.(2005). Penetrating the "knowledge filter" in regional economies.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39(3), 439-456.
- Aghion, P., & Howitt, P.(1990).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1), 3223.
- Barney, J.(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 Barr, S. H., Baker, T. E. D., Markham, S. K., & Kingon, A. I.(2009). Bridging the valley of death: Lessons learned from 14 years of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8(3), 370-388.
- Bhuiyan, M. F., & Ivlevs, A.(2019). Micro-entrepreneur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Banglades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4(4), 625-645.
- Becker, G. S.(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nce to education.
- Carland, J. W., Hoy, F., Boulton, W. R., & Carland, J. A. C.(1984). Differentiating Entrepreneurs from Small Business Owners: A 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354-359.
- Chen, M. H.(2007). Entrepreneurial leadership and new ventures: Creativity in entrepreneurial teams.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16(3), 239-249.
- Chun, D. P.(2018).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 on Venture Business Managerial Performance: By Separating the Duration of Firms Surviva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1-12.
- Chung, D. H., Lee, G. P., & Shin, J. H.(2019). The Influences of Intellectual Property-based Entrepreneurship on major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3), 1-11.
- Covin, J. G., & Slevin, D. P.(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 DeCarolis, D. M., & Deeds, D. L.(1999). The impact of stocks and flows of organizational knowledge on firm performance: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biotechnology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10), 953-968.
- Dickson, P. R.(1996). The Static and Dynamic Mechanics of Competition: a Comment on Hunt and Morgan's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The Journal of Marketing*, 102-106.
- Gangwon Province(2017). *Gangwon Statistical Information*. Retrieved (2020.4.26.) from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211&tblId=DT_A21&conn_path=I3.
- Go, B. S., Yong, S. J., & Lee, S. C.(2003).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The Korean venture management review*, 6(2), 3-33.
- Hong, H. S., & Seol, B. M.(2013).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tudents' Business Incubation Club on Youth Start-up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141-151.
- Hwang, I. K., Lee, W. J., & Kim, D. H.(2017). A Study on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and Experience on the Firm's Performance in Manufacturing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12(4), 189-214.
- Jeon, I. H.(2012). Established business start: up support Impact on The youth of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1), 103-114.
- Kierulff, H. E.(2005).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Poland: Findings from the field.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Manufacturing & Service Industries*, 15(1), 93-98.
- Kim, H. C.(201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venue in Seoul's Side Street Trade Areas. *The Seoul Institute*, 20(1), 117-134.
- Kim, H. S., & Park, B. J.(2009). The Demand Level for Business Start-up Education and Willingness of Starting a Busines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4(4), 139-165.
- Kim, I. S., Kim, S. H., & Kim, Y. M.(2011). The Effect of the Inno-biz Certificate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KOSDAQ Market.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29(1), 183-210.
- Kim, I. S., & Kim, W. B.(2013). A Study on Effects of R&D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bility of Inno-Biz Companies on Corporate Performances.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7(2), 137-160.
- Kim, J. H.(2014). Regional Disparity in Gangwon-do since Financial Crisi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attern and Path of Regional Growth. *Journal of Social Science*, 53(1), 3-36.
- Kim, M. S., Hwang, B. Y., & Kim, H.(2010). A Study on Influence to Business performance of business incubator

- company via CEO's Characteristic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5(2), 33-57.
- Kim, Y. S., Gyu, H. W., & Su, Y. J.(2003). On the Determinants of Merger and Liquidation of Korean Companies. *Journal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14(4), 1-24.
- Kirzner, I. M.(1997).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ness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1), 60-85.
-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2014). *An Analysis of the Survival and Impact Factors of Technology Guarantee Fund Support Companies*. 4(2), 152-179.
- Kuratko, D. F. (2016). Different entrepreneurial ventures for greater societal value: A portfolio approach to assist public policy. *The Antitrust Bulletin*, 61(4), 546-560.
- Kwak, K. T., Cheon, Y. J., & Choi, S. K.(2018). Performance Analysis on Types of Startup Promotion Policy: Focusing on Supporting Programs, Targets, and Mode. *Innovation studies*, 13(2), 83-103.
- Lee, C. G., & Seo, Y. W.(2018).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s of Entrepreneurship in Young Adults through the Analysis of Local Entrepreneurial Ecosystem: Focusing on Entrepreneurship Program Participants in Daejeon Area.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6), 182-207.
- Lee, J. H.(2006). *Location factors and spatial networks of enterprises established in and around DaeJeon*.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 Lee, K. S., & Park, S. H.(2019).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Business Start-up and Closing Business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y.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22(2), 178-195.
- Lee, S. C.(2014). Youth Startup Firms: A Case Study on the Survival Strategy for Creating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2(6), 81-88.
- Lee, S. J., & Hwang, B. Y.(2010). Exploratory study on a psychological traits changes by entrepreneurship short-term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5(1), 19-44.
- Lee, Y. H., Hong, K. P., Jeong, Y. S., & Park, S. H.(2016). Develop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strategy for venture's successful startup. *Enterprise Education Research*, 18(1), 133-157.
- Mann, R. J., & Sager, T. W.(2007). Patents, venture capital, and software start-ups. *Research Policy*, 36, 193-208.
- Marshall. A.(1890). *Principles of Economics*. The Macmillan Company: NY
- Murphy, L. M., & Edwards, P. L.(2003). *Bridging the valley of death: Transitioning from public to private sector financing*. Golden, CO: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 Na, S. G.(2016).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s of Small Business Start-up Founders.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35(4), 251-268.
- Park, H. R., & Oh, H. S.(2016). Lessons from Experience of Entrepreneurs.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18(1), 85-112.
- Park, J. W., Choi, M. G., & Kim, Y. T.(2010).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Performa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Focused on Short Program of Local Govern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3), 1085-1094.
- Park, W. M., & Choi, S. Y.(2014). The Impact of Work Experience of Related Domain on the 'Good Quality Startup' : K-Ventures Case Stud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9(5), 141-155.
- Patel, P. C., Wolfe, M. T., & Williams, T. A.(2019). Self-employment and allostatic load.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4(4), 731-751.
- Pontikes, E. G., & Hannan, M. T.(2014). An ecology of social categories. *Sociological science*, 1, 311-343.
- Roure, J. B., & Maidique, M. A.(1986). Linking Prefunding Factors and High-Technology Venture Succes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295-306.
- Ryu, J. Y., Nam, J., & Yi, C. H.(2014). Analysis on the Survival Rate and Impact Factors on Survival Duration for Startup Medium and Small-sized Firm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7(4), 247-271.
-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hin, S. H., & Kim, M. K.(2013). The Effects of Innovation Type SME Certificates focused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between the Inno_biz and the Main_biz.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3(3), 193-217.
- Siqueira, A. C. O., Webb, J. W., & Bruton, G. D.(2016). Informal entrepreneurship and industry condi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0(1), 177-200.
- Slater, S. F., & Narver, J. C.(1995). Market Orientation and The Learning Organization. *Journal of Marketing*, 59(3), 63-74.
- Song, C. S., & Park, J. P.(2013). An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Venture Firm Supporting Policies in Korea.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51, 215-240.
- Statistics Korea(2018). *National Population Movement Statistics*. Retrieved (2019.4.7.)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B10&conn_path=I3.
- Statistics Korea(2018). *Economic Activity Population Survey*. Retrieved (2019.4.6.)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
- Timmons, J.(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4th Edition. Boston. Macgraw-Hill.
- Timmons, J. A., Muzyka, D. F., Stevenson, H. H., & Bygrave, W. D.(1987). Opportunity recognition: the core of entrepreneurship.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7, 109-123.

- Venkatraman, N., & Ramanujam, V.(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801-814.
- Wallsten, S. J.(2001). An econometric analysis of telecom competition, privatization, and regulation in Africa and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49(1), 1-19.
- Weick, K. E.(1996). Drop your tools: An allegory for organizational stud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01-313.
- Yi, H. D.(2009). The Relation between R&D Cuts of Venture Firms and Future Financial Performance.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27(4), 275-298.
- You, Y. Y., & Roh, J. W.(2011). Analysis of Difference in Effect of Venture Certification and Innobiz Certification of Manufacturing Venture Enterprise.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4(1), 1000-102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th Startup Support Project in Gangwon-do Province on Startup Performance

Jiwon Yun*
Woojin Park**
Bae Byung Yun***

Abstract

As youth employment has become a social issue every year,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policies to support youth start-ups to create jobs voluntarily as a way to enhance the youth employment rate. In the case of young people in Gangwon Province, the number of people moving to other regions is increasing.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actual achievements of youth start-ups through the 'Youth Start-up Project' in Gangwon-do. It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support, education comple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tention, and certification retention,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start-up companies, and hypotheses that the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start-up performance (sales amount, duration of existence, or whether they are retained or not). Age and geographical factors (Yeongdong and Yeongseo) were injected as control variables to see how they affect them. Furthermor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setting up a hypothes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 companies and subsequent support between start-up performance would have a positive intermediary effect.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remaining characteristics, except for education comple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sales, and that the more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rojects, the longer the duration of the company's existence. In additi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government support projects was significant in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arameter, follow-up suppor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tart-up performance, and the subsequent support mediating effect show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rt-up performance, except for geographic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customized support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start-ups in order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young start-ups. Support agencies need to refer to corporate characteristics for smooth management and selection. In the Gangwon-do area, the government should seek to provide timely and organic support for start-up companies in order to produce successful start-up cases.

KeyWords: Gangwon-do Province, Youth start-ups, Start-ups, Follow-up support, Start-up performance

* First Author, Master, The Graduate School of G. B. Entrepreneurship, Yonsei University, yunnjw@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Government & Business, Yonsei University, hawkmaint@yonsei.ac.kr

*** Co-Author, Ph.D, College of Government & Business, Yonsei University, yonseibby@gmail.com